

#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

2017. 3. 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3월 2일, 이봉수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3월 7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이봉수 의원
- 현재 한·일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, 일본의 역사왜곡 및 신사참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곳곳에 설치하여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되새기고 있음
-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일본군 관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픈 과거를 잊지 않게 하고자 상암택지개발 시 설치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임.
- 일본군 관사 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

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-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·도의적 책임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없이 평화의 소녀상을 문제 삼고 있어 우리 국

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- 또한,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.
- 따라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구 역사보존건물인 일본군 관사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자는 결의안은 시기적 적정성과 위치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됨.
- 다만, 마포구와 일본 카츠시카구가 자매결연 도시인 점, 일본군 관사 에 대한 주변의 다양한 민원이 공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,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주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며,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 마포구 관광의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지자체마다 차별화 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구가 보존하고 있는 일본군 관사 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면 역사와 연계한 교육·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